

소외계층 영재학급에 대한 효과성 조사

홍순원^{1*} · 이용섭²

¹울산동백초등학교 · ²부산교육대학교

A Survey on the Effect in the Class of Disadvantaged Gifted

Soon-Won Hong^{1*} · Yong-Seob Lee²

¹Ulsan Dong-Baek Elementary School · ²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bout effect for class of disadvantaged gifted student. For this, twenty-one item-questionnaires were given to fifty three students at third graders in four elementary gifted schools located in Ulsan.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lementary school cognitive aspects of disadvantaged gifted class from the result of the effectiveness, 3rd grade students surveyed were all positive. Most of the students about help in learning, record enhancement, presentation skills, resources utilization, problem solving, study skills, creativity and confidence in learning in 77.3% of students answered that they had a positive influence. Second, the elementary school affective aspects of disadvantaged gifted class from the result of the effectiveness, 3rd students surveyed were all positive. Most of students about study habits, attitude, interest in studying, studying aspects related to the confidence and positive in 67.3% of stu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affected.

Third, the elementary school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disadvantaged gifted class from the result of the effective, 3rd students surveyed were all positive. Most of the students about teachers, students, parents, and efficient use of time for study 70.9% of students answered that they had a positive influence.

Fourth, the elementary school private aspects of disadvantaged gifted class from the result of the effective, 3rd grade students surveyed were all positive. Most of the students about reliance on private tutoring classes, interest, record enhancement in 65.1% of students answered that they had a positive influence.

Key words : disadvantage gifted, gifted education, effect

I. 서 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통계청(2010)에 따르면 1970년도 GDP는 약 2조 7천억이었으나 2009년도 GDP는 약 1063조로 380배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양적 경제 성장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단기간의 압축경제 성장에 따라 불균형적인 소득분배 구조로 인하여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차원에서 정부는 2003년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시범적으로 설정하여 2008년도에는 전국 100개 지역에서 인구 제한 없이 소외계층에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외부 환경에 의한 교육의 기회 제한이 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또한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시작되어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영재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에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하여 영재교육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외계

* 교신저자 : 홍순원(mousesaint@empal.com)

2010. 12. 07(접수) 2010. 12. 20(1심통과) 2010. 12. 26(2심통과) 2010. 12. 27(최종통과)

층에 대한 리치아웃(Reach Out)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2005)는 2005~2010년까지 전국 77개 기관 158학급 308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전체 영재학급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를 비교하여 보면 기관운영 58,207명, 사이버 영재 10,020명, 영재 캠프 운영 34,204명과 비교하여 볼 때 소외계층 영재 3082명으로 적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외계층 영재의 영재교육에 있어 제한은 이러한 교육 편중현상은 다양한 국내외 연구를 통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익 외(2003)는 출신지역,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입학률에 차이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유한구(2007)는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회계층이 가지는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사교육과 교사의 영향은 비슷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교육과 측면에서 김경근(2005)은 가계소득의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작은 계층에 비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을 지적하고 있다. 국외 연구(Donovan & Cross, 2002; Westhuisen, 2007; Chagas & Souza, 2006; Vantassel et al., 2002; Dai, 2002; Borland et al., 2000; Coleman, 2006)에서는 가난하거나 소수 계층의 학생들이 영재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사회 계층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소득을 가지는 계층일수록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결과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윤은경(1990)의 연구에서 수업에서 계층에 따른 영향이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류계층의 아동들이 하류계층의 아동들 보다 교사와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에 의해 이러한 행동들이 칭찬, 격려를 통해 강화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교수·학습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하류 계층의 학생들이 다른 계층의 학생들보다 수업에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하거나 교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교육 기회를 가지는 계층에서 교육소외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소외가 일어나는 낮은 경제적 수준 학생들과 관련된 학생들의 특징을 신기왕(2008)은 학교수업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학습 능력과 이로 인한

학교 학습활동 참여의 어려움, 생활태도에서 무규범성과 무질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하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이정화(2006)는 아동들에 대해 교사의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해 적대시, 동정대상, 무관심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경제적 어려움을 인하여 학생들이 기본생활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교육에 접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교실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소외계층 학생들이 가지는 낮은 자존감은 학생들의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소외의 다른 원인인 지역적 특색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접근이 제한에 대해 김지중(2008)은 도서지역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에 있어 교통수단의 불편함으로 인한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며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의 정보가 늦으며 교육의 기회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부모의 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도 교육에 접근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소외계층 영재학급 운영에서는 학생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진행되어야 하며 영재교육 접근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외계층 영재학급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문화적, 사교육 측면의 효과성 분석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분석을 통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외계층 영재학급운영의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계층 영재학급 효과성은 어떠한가?

둘째, 소외계층 영재학급의 효과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소외계층 영재학급의 효과성을 살

펴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 4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이들 4개 초등학교는 지역 공동 영재학급 4학년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중 영재 학급에 대한 공고를 게시하고 선발하여 4월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4학년 과정과 별도로 3학년 소외계층 영재 통합과정에 대한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외계층 영재 학급 대상자는 지역적 특색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들을 선발하여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소외계층 영재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10월 중에 담당 교사들과 연락하여 검사지를 의뢰하였다. 검사지는 효과성 검사 도구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효과성 검사 도구는 인지적, 정의적, 사회문화적, 사교육 측면으로 구성되어지며 실제 학생들이 영재학급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개선된 점을 살펴보기 위해 선택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학생들이 소외계층 영재학급을 통해 느끼는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그리고 달라진 공부방법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질문하여 효과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소외계층 영재학급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하위 요소인 학생들의 초인지, 정보탐색 및 과제해결, 내재적 동기, 주인의식과 효과성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소외계층 영재의 운영에 있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살펴 볼 것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는 강남 교육청 소속 D초등학교 소외계층 영재학급, Y초등학교 소외계층 영재학급, 강북 교육청 소속 E초등학교 소외계층 영재학급, J초등학교 소외계층 영재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울산 관내에서는 소외계층 영재학급이 4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지역공동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3학년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영재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3. 검사 도구 및 자료 처리

1) 효과성 검사 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검사 도구는 한선관 외(2007)의 U-러닝의 효과성

검사를 위해 사용한 검사 도구를 기초로 하여 최선영(2008)이 영재학급의 내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그리고 사교육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문이 작성되었다. 문항은 인지적 영역 9문항, 정의적 영역 4문항, 사회문화적 영역 4문항, 사교육적 영역 4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효과성 인식 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9624로 나타났다.

2)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검사

검사도구는 박용휘(2003)가 개발한 것을 박희영(2008)이 수정 보완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은 주인의식 4문항, 초인지 5문항, 정보탐색 및 과제해결 5문항, 내재적 동기 및 자기 성찰 5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검사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는 .891이다.

4. 설문 조사 방법

작성한 설문지를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계층 영재학급 담당 운영자에게 연락을 하여 협조요청을 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 영재학급 담당자는 학생들에게 자료를 나누어 준 후 자료를 송부하였으며,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 처리를 SPSS WIN 17.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소외계층 영재학급 학생들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재학급 효과성 인식 조사

1) 인지적 측면

소외계층 영재학급의 인지적 측면의 효과성 조사 결과는 표 1과 같다.

1번 문항은 소외계층 영재학급 참여로 인해 자신의 공부에 도움과 관련된 내용으로 소외계층 영재 학생들이 83.8%(④+⑤)의 학생이 소외계층 영재학급이 자신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지역 단위 소외계층 영재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

표 1. 인지적 측면 빈도 분석 결과(%)

문항	①	②	③	④	⑤	무응답
1	0(0.0)	2(3.7)	7(13.0)	12(22.2)	33(61.1)	0(0.0)
2	1(1.9)	4(7.4)	13(24.1)	15(27.8)	21(38.9)	0(0.0)
3	2(3.7)	5(9.3)	6(11.1)	15(27.8)	26(48.1)	0(0.0)
4	1(1.9)	3(5.6)	6(11.1)	10(18.5)	34(63.0)	0(0.0)
5	0(0.0)	3(5.6)	5(9.3)	19(35.2)	27(50.0)	0(0.0)
6	2(3.7)	2(3.7)	9(16.7)	15(27.8)	26(48.1)	0(0.0)
7	3(5.6)	3(5.6)	14(25.9)	15(27.8)	19(35.2)	0(0.0)
8	1(1.9)	3(5.6)	8(14.8)	14(25.9)	28(51.9)	0(0.0)
9	1(1.9)	1(1.9)	5(9.3)	13(24.1)	34(63.0)	0(0.0)
합계	11(2.3)	26(5.3)	73(15.0)	128(26.3)	248(51.0)	0(0.0)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한다. 2번 문항은 영재학급으로 인해 성적 향상에 도움과 관련된 내용으로 65.7%(④+⑤)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성적향상에 영재학급 참여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번 문항은 발표 능력과 관련된 문항으로 75.9%(④+⑤)의 학생들이 자신의 발표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재학급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결과이다. 4번 문항은 자료 활용과 관련된 문항으로 81.5%(④+⑤)가 문제 해결에 다양한 자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번 문항은 과제 해결에 관련된 내용으로 85.2%(④+⑤)의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기존의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6번 문항은 자신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75.9%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7번 문항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관련된 문항으로 63%(④+⑤)의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능력이 향상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교해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8번 문항은 창의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78.8%(④+⑤)의 학생들이 창의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외계층 영재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함으로써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에 대해 접근하기 때문인 것이다. 9번 문항은 문제 해결과 관련된 문항으로 57%(④+⑤)의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외계층 영재학급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인지적 측면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소외계층 영재 프로그램에 대해 77.3%(④+⑤)이상이 좋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외계층 영재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개방형 설문을 통한 학생들의 반응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었다.

‘문제를 푸는 실력이 향상 되었다. 발표 능력이 더 늘었다.’

‘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기발한 생각이 난다.’

‘문제를 푸는 실력이 향상 되었다. 발표 능력이 더 늘었다.’

이러한 점에서 소외계층 영재학급은 학생들의 인지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정의적 측면

소외계층 영재학급의 정의적 측면 조사결과는 표 2와 같다.

1번 문항은 공부하는 습관과 관련된 문항으로 64.8%(④+⑤)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습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외계층 학생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공부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2번 문항은 수업태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55.9%(④+

표 2. 정의적 측면 빈도 분석 결과(%)

문항	①	②	③	④	⑤	무응답
1	3(5.6)	4(7.4)	12(22.2)	20(37.0)	15(27.8)	0(0.0)
2	3(5.6)	1(1.9)	9(16.7)	12(22.2)	29(53.7)	0(0.0)
3	2(3.7)	4(7.4)	7(13.0)	12(22.2)	29(53.7)	0(0.0)
4	2(3.7)	3(5.6)	7(13.0)	13(24.1)	29(53.7)	0(0.0)
합계	10(5.4)	12(6.5)	35(18.8)	57(30.6)	72(38.7)	0(0.0)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⑤)의 학생들이 수업태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윤은경(1990)의 연구에서 계층의 차이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 참여에 차이가 생기는 점과 일치하는 점이다. 즉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해 담당 학급 교사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유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번 문항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75.9%(④+⑤)의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외계층 영재 프로그램 참가로 인하여 학생들이 적절한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4번 문항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것으로 77.8%(④+⑤)의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소외계층 영재학급의 정의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소외계층 영재 프로그램에 대해 67.3%(④+⑤) 이상이 좋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외계층 영재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개방형 설문지를 통한 학생들의 반응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었다.

- ‘공부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집중이 잘된다. 이해가 잘 된다.’
-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졌다. 태도도 좋아졌다.’

이는 소외계층 영재학급에서 정의적 측면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측면

소외계층 영재학급의 사회 문화적 측면의 효과성 조사결과는 표 3과 같다.

1번 문항은 교사와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으로 61.1%(④+⑤)의 학생들이 교사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수업에 참여한 담당 교사들에 의해 학생들과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번 문항은 친구 사이의 친밀감과 관련된 문항으로 74.1%(④+⑤)의 학생들이 소외계층 영재학급을 통해 친구 사이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특징과 관련된 신기왕(2008)의 연구에서 소외계층 학생들 중 경제적 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소외계층 영재학급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 것이다. 3번 문항은 부모님과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으로 68.5%(④+⑤)의 학생들이 부모님과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소외계층 영재학급 참여를 통해 부모님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4번 문항은 효율적인 공부시간관 관련된 문항으로 79.6%(④+⑤)의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외계층 영재 학생들이 영재학급 참여를 통하여 다른 계층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에 제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표 3. 사회 문화적 측면 빈도 분석 결과(%)

문항	①	②	③	④	⑤	무응답
1	2(3.7)	2(3.7)	17(31.5)	13(24.1)	20(37.0)	0(0.0)
2	3(5.6)	2(3.7)	9(16.7)	10(18.5)	30(55.6)	0(0.0)
3	3(5.6)	5(9.3)	9(16.7)	4(7.4)	33(61.1)	0(0.0)
4	3(5.6)	3(5.6)	5(9.3)	17(31.5)	26(48.1)	0(0.0)
합계	11(5.1)	12(5.6)	40(18.5)	44(20.4)	109(50.5)	0(0.0)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소외계층 영재 프로그램에 대해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70.9%(④+⑤)이상이 좋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외계층 영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개방형 설문지를 통한 학생들의 반응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졌다.’

‘친구와 잘 지내게 되었다.’

‘부모님과 대화가 많아지고 발표실력도 향상 되었다.’

‘선생님과 사이가 좋아지고 성적이 올라갔다.’

이는 소외계층 영재학급에서 정의적 측면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4) 사교육 측면

소외계층 영재학급의 사교육 측면 효과성 조사결과는 표 4와 같다.

1번 문항은 소외계층 영재학급 참여로 인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에 관해 묻는 문항으로 42.9%(④+⑤)의 학생들이 소외계층 영재학급 참여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25.9%의 학생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학교 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차이로 인한 것에 기인한다.

2번 문항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에 대해 앞으로 변화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38.8%(④+⑤)의 학생들이 앞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3번 문항은 영재학급의 참여에 대한 재미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74.1%(④+⑤)의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보다 재미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각 학교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적절히 자극했기 때문이다. 4번 문항은 영재학급 참여로 인해 성적향상에 도움을 묻는 문항으로 68.5%(④+⑤)의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소외계층 영재학급의 사교육 측면 조사결과는 표 4와 같다.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소외계층 영재 프로그램에 대해 65.1%이상이 사교육 측면에서 좋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외계층 영재 프로그램이 학원이나 과외에 비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개방형 설문지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과외에서 어려운 문제도 이해가 잘 된다.’

‘공부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성적이 올라갔다.’

‘새로운 것을 배워서 좋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지속적으로 소외계층 영재학급에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하위 영역간 상관관계 분석

영재학급 효과성에 대한 하위 영역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상관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이 $r=.762$ ($p=.000$), 인지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이 $r=.616$ ($p=.000$), 인지적 측면과 사교육 측면이 $r=.580$ ($p=.000$), 정의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이 $r=.714$ ($p=.000$), 정의적 측면과 사교육 측면이 $r=.672$ ($p=.000$), 사회문화적 측면과 사교육 측면이 $r=.540$ ($p=.000$)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외계층 영재학급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학습에 대한 정의적 부분에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소외계층 영재 학생들의 효과성 인식을 선행연구(최선영, 2008)와 같이 표 6과 같이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4, 5, 6학년년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소외계층 영재학생들은 효과성 인식에 있어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나타내었다.

표 4. 사교육 측면 빈도 분석 결과(%)

문항	①	②	③	④	⑤	무응답
1	14(25.9)	7(13.0)	10(18.5)	8(14.8)	13(24.1)	2(3.7)
2	12(22.2)	10(18.5)	9(16.7)	9(16.7)	12(22.2)	2(3.7)
3	3(5.6)	4(7.4)	5(9.3)	8(14.8)	32(59.3)	2(3.7)
4	2(3.7)	4(7.4)	9(16.7)	11(20.4)	26(48.1)	2(3.7)
합계	31(14.4)	25(11.6)	33(15.3)	36(16.7)	83(38.4)	8(3.7)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표 5. 영재학급 효과성 인식 검사 상관관계 분석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사교육 측면
인지적 측면	pearson 상관계수	1			
	<i>p</i>				
정의적 측면	pearson 상관계수	.762	1		
	<i>p</i>	.000			
사회 문화적 측면	pearson 상관계수	.616	.714	1	
	<i>p</i>	.000	.000		
사교육 측면	pearson 상관계수	.580	.672	.540	1
	<i>p</i>	.000	.000	.000	

표 6. 선행연구와 비교

구 분	평균(표준편차) (본 연구, n=53)	평균(표준편차) (선행연구, 최선영, 2008)				<i>F</i>
		4학년 (n=102)	5학년 (n=95)	6학년 (n=95)	합계 (n=292)	
인지적 측면	37.94 (6.89)	36.98 (9.29)	34.61 (8.51)	31.83 (8.08)	34.52 (8.88)	8.704
정의적 측면	16.45 (3.60)	15.38 (3.85)	14.57 (4.51)	13.19 (4.14)	14.40 (4.25)	6.912
사회 문화적 측면	16.37 (3.84)	15.62 (3.97)	14.89 (4.25)	13.52 (3.72)	14.70 (4.06)	7.019
사교육 측면	14.35 (4.11)	13.75 (5.19)	12.97 (5.00)	11.45 (4.53)	12.75 (5.00)	5.524

이러한 결과는 맹희주와 서혜애(2010)의 발명영재 교육이 학생들에게 인식과 태도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소외계층 영재 교육과 관련하여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이 상호 관련성이 높은 점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학생들이 소외계층 영재 교육을 통하여 학생과 교사간의 태도가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윤은경(1990)의 연구에서 계층간의 차이로 인하여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제한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이 소외계층 영재 교육을 통하여 교사와 상호작용에 있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학생들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의 관계가 더 나아졌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2. 효과성 및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상관관계

효과성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상관관계는 표 7과 같다.

소외계층 영재학급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문화적, 사교육 측면의 효과성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r=.512(p=.000)$ 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외계층 영재학급의 운영으로 인한 효과성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8은 효과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하위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이다.

상관은 주인의식과 인지적 측면이 $r=.392(p=.000)$, 주인의식과 정의적 측면이 $r=.285(p=.039)$, 주인의식과 사회문화적 측면이 $r=.274(p=.047)$, 초인지와 인지적 측면이 $r=.464(p=.000)$, 초인지와 정의적 측면이 $r=.535(p=.000)$, 초인지와 사회문화적 측면이 $r=.394(p=.004)$, 정보탐색 및 과제해결과 인지적 측면이 $r=.533(p=.000)$, 정보탐색 및 과제해결과 정의적 측면이 $r=.454(p=.001)$, 정보탐색 및 과제해결과 사회문화적 측면이 $r=.279(p=.043)$, 내재적동기와 인지적 측면이 $r=.488(p=.000)$, 내재적 동기와 정의적 측면이 $r=.484(p=.000)$, 내재적 동기와 사회문화적 측면이 $r=.343(p=.012)$ 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인지와 정의적 측면이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외계층

표 7. 효과성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상관관계

효과성	구 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pearson 상관계수(r)	0.512
	유의확률 (양쪽)	0.000	

표 8. 효과성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하위 요소간의 상관관계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사교육 측면
주인의식	pearson 상관계수	0.392	0.285	0.274	0.176
	p	0.004	0.039	0.047	0.216
초인지	pearson 상관계수	0.464	0.535	0.394	0.280
	p	0.000	0.000	0.004	0.047
정보탐색및과제해결	pearson 상관계수	0.533	0.454	0.279	0.215
	p	0.000	0.001	0.043	0.130
내재적동기	pearson 상관계수	0.488	0.484	0.343	0.274
	p	0.000	0.000	0.012	0.051

영재학급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수록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중 초인지가 향상됨을 알 수 있는 점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외계층 영재학급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남 교육청 2개 학교와 강북교육청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인지적, 정의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사교육 측면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으로 나누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소외계층 영재학급학생들의 인지적 측면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인 3학년 학생들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외계층 영재학급 참여로 인한 학습에 도움이 되며, 성적향상, 발표능력, 자료 활용, 과제 해결, 공부 방법, 창의성, 학습의 자신감에 있어 77.3%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소외계층 영재학급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인 3학년 학생들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습관, 수업태도, 공부에 대한 흥미,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된 측면에서 67.3%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소외계층 영재학급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측면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

인 3학년 학생들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 효율적 공부시간 활용에 대해 70.9%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초등학교 소외계층 영재학급 학생들의 사교육 측면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인 3학년 학생들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감소, 수업에 대한 흥미, 성적향상에 있어 65.1%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초등학교 소외계층 영재학급 학생들의 효과성이 높아질수록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소 중 정의적 측면과 초인지 능력 간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살펴볼 때 현재 울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외계층 영재학급이 인지적, 정의적, 사회문화적, 사교육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성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외계층 영재학급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5). 수월성 교육 종합 시행대책 계획. 강영주(2009). 교육소외계층의 교육지원 방안, 대구교육대

- 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광역(2003). 입시제도의 변화. *한국사회과학* 25(1), 25(2), 3-187.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 실태와 원인, 한국 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723-747.
- 김미숙(2008). 한국의 영재교육정책과 새 방향: '프로젝트 S&S(Stand & Shine)', 소외계층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 국제심포지엄자료집(119-155).
- 김지중(2008). 도서지역과 도시지역의 교육격차에 대한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맹희주, 서해애(2010). 발명영재교육 운영 체제별 초등 발명 영재 수업 내용 및 수업 활동 분석, *초등과학*, 29(1), 1-12.
- 박용휘(2003). 초등학교 고학년용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진단척도의 타당화,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희영(2009). 시간관리 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기왕(2008). 교육소외 아동의 학습 개선을 위한 방과후 학교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유한구(2007). 정책과 이슈: 사회계층과 교육격차,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윤은경(1990). 아동의 사회계층과 교사-아동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화(2006). 도시 빈민층의 교육소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선영(2008). 초등과학 영재 학생의 영재학급에 대한 효과성 조사, *초등과학*, 27(4), 437-445.
- 통계청(2010). e-나라지표(2010.10.24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 한선관, 이철현, 최선영, 이상하, 서정희(2007). U-러닝 효과성 분석 및 U-러닝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연구 보고서, CR 2007-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Borland, J. H., Schnur, R. & Wright, L. (2000). 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s in a School for the Academically Gifted: A Postpositivist Inquiry into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The Gifted child quarterly*, 44(1), 13-32.
- Chagas, J. F. & Souza, F. D. (2006). Development of Gifted Behaviors: A Study with Families of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Environments.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21(1), 10-18.
- Coleman, L. (2006). Talent Development in Economically Disadvantaged Populations. *gifted child today*, 29(2), 22-27.
- Dai, D. Y. (2002). Are Gifted Girls Motivationally Disadvantaged? Review, Reflection, and Redirection.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5(4), 315-358.
- Donovan, M. S. & Cross, C. T. (Eds.). (2002). *Minority students in special and gifted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Vantassel, B. J., Johnson, D. & Avery, L. D. (2002). Using Performance Tasks in the Identification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 Minority Gifted Learners: Findings From Project STAR. *The Gifted child quarterly*, 46(2), 110-123.
- Westhuisen, C. (2007). Undervalued and under-served: The gifted disadvantaged.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23(2), 138-148.